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Adjustment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이 영 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민 하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전임강사 이 윤 주

Division of Social Welfare, Cheonan University

Lecturer : Lee, Young-Mi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Min, Ha-Yeoung

Dept. of Education, Catholic Univ. of DaeGu

Lecturer : Lee, Yoon-Joo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287 college students(107 boys and 180 girls) in Daegu and Kyoungbuk Provinc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college students' depression,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and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program, including median,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al analysis, and regression.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ollege students who perceived their parents' marital conflict as lower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s positive were less depressive and less anxious and were good at school than those who perceived them as higher and negative. (2) The college students of the family with negativ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high parents' marital conflict were more negative in psycho-social adjustment than those of the family with positiv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r low parents' marital conflict. (3)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positiv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as more influential on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adjustment than the parents'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  
▲주요어(Key Words) : 부모간 갈등(parents' marital conflict), 부모자녀간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심리·사회적 적응  
(psycho-social adjustment)

\* 주 저 자 : 이영미 (E-mail : selfdis@hanmail.net)

\*\* 교신저자 : 민하영 (E-mail : mhycd@hanmail.net)

## 1. 서 론

청소년 후기의 대학생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과정의 마지막 지점에 있으면서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고 자신에게 기대되는 발달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기 청소년은 많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심리적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겪기 마련이다.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은 자신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타인의 삶과 복지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의 결정요인으로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를 주목한 언급들이 많지만 청년의 심리적 발달에서 사회적 맥락(정옥분, 2004)은 그에 못지않은 의미를 가지며 그 중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한 맥락이다. 청년후기에 이르면 부모나 가족에서의 독립이 기대되는 시기이고 가족과의 관계보다는 학교나 학업, 이성과 친구, 직업세계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부모나 가정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은 경시되기 쉽다. 그러나 가족내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 후기에 접어든 대학 1, 2학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가족은 여전히 의미있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 요인 중 부모의 태도, 양육 방식 등의 영향을 강조하지만 부모의 특성에서 나아가 가족 구성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주는 영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가족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서 작용하는 가족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의미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과정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부모간의 갈등을 선정하고 이러한 가족과정과 후기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족과정의 부정적 단면인 부모간의 갈등은 일면 자녀가 부모간의 갈등과 분노를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처기술과 능력을 발달(권영옥·이순형, 1999)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아동의 다른 발달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널리 확인되었다.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 사회적 능력, 학업 성취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권영옥·이정덕, 1999; 박보경, 2002; 양희정, 1999; 이민식, 1999; 정은희·이미숙, 2004; Amato & Keith, 1991; Grych & Fincham, 1990).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도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청소년이 부적응을 나타낸다(나철·이길홍·민병근, 1984; 임경원, 1997; Harold & Conger, 1997)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부모간의 갈등이 낮은 가정에서 대학생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부모간의 갈등 및

부모자녀 관계라는 가족과정이 대학생의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유희정, 2001)이라고 제시하였다. 나아가 부모간의 갈등은 갈등의 차원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고 지적되었다.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이 부모간의 갈등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권영옥·이정덕, 1999; 양희정, 1999; 정은희·이미숙, 2004; Grych & Fincham, 1990; Wierson, Forehand & McCombs, 1988) 부모간의 갈등의 강도가 높을 때 부정적 영향(양희정, 1999; 정은희·이미숙, 2004; Grych & Fincham, 1990)이 뚜렷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해결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갈등이 해결되는 정도나 방식에 따라 다른데(권영옥·이순형, 1999; Cummings, Pellegrini, Notarius, & Cummings, 1989) 부모간의 갈등이 해결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에게서 부정적 정서나 행동문제가 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사회적 능력과 대처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긴장이 지속되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도 부모간의 갈등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나 강도보다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는 것이 대학생의 자신감, 낙관적인 태도 등과 보다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4).

이와 같이 부모간의 갈등은 자녀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이며 정서적 위협(정은희·이미숙, 2004)이 되고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간 갈등의 차원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갈등에 비해 자녀가 자주 접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강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의 경우 그 가정에서 부모간의 갈등이 존재했었고 빈발한다면 어린 시기에 못지 않게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년 후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과 동일시보다 독립과 자율에 대한 욕구가 크고 생애 중 가장 먼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허혜경·김혜수, 2002)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영향력있는 존재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고(Windle, 1992) 부모간의 갈등이 후기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린 시기와 다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모간의 갈등이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가족과정의 또하나의 측면이다. 가족내에서의 의사소통을 부모자녀간에 초점을 맞추어 보게 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Galvin & Brommel, 1986; 민하영, 1991)”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구분된다. 개방적 의사소통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다. 폐쇄적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의사교환 및 주제선택에 조심하고 주저 혹은 회피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유형이다(Barns & Olson, 198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김정선, 1996; 이영숙·김정옥, 2002)이나 문제행동(김경화, 1989; 김수현, 2003; 민하영, 1991; 유정선·이정숙, 2004; 장미숙, 1999)과 관계가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독립성, 책임성, 동정심, 수용성, 사교성, 우호성 등의 대인관계 성향과 관련을 보이며(심혜영, 1992),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 성향(김경화, 1989)을 갖는다. 특히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우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영숙·김정옥, 2002)이었으며, 초기 청소년 중 여학생의 경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여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유정선·이정숙, 2004)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 발달이나 행동문제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기 이후로도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의사소통이라는 교류를 통해 형성되고 계속적으로 변화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가치를 전달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가운데 내적 긴장의 완화, 관계 확인에 따른 자신감이나 안정감을 얻는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 후기에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지원과 격려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후기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의존의 양가감정을 경험하며 정체감을 형성하고 나름의 가치관과 이념체계를 형성하며 자기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교류의 확장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재구성되는 시기(Windle, 1992)이므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후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청소년기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이 연구는 부모간의 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라는 과정변인을 선정하여 각각 후기 청소년의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간 갈등이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설명 요인이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은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공격성향, 불안성향 그리고 후기 청소년의 대학생활 적응으로 구체화하여 가족과정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부모

간 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고 한 가족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요소이므로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기초로 가족과정 유형을 구분짓고 각 가족과정 유형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가족 과정 변인과 같은 대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후기 청소년의 적응에서 가족 및 부모가 가지는 비중을 확인하고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이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대학초년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가족과정유형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1,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하는 D대학에서 1, 2학년의 남녀대학생을 임의표집하였으며 아동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이 대학 구내에서 질문지를 배부한 후, 그 자리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응답은 약 15분 가량 소요되었다. 배부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287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조사 대상의 연령은 평균 20.03세(표준편차=1.47)였고 그 중 1학년 학생은 172명(59.9%), 2학년 학생은 115명(40.1%)이었다. 남학생이 107명(37.3%) 여학생이 180명(62.7%)이었으며, 인문사회계열전공 학생은 152명(53.0%), 자연공과계열전공 학생은 122명(42.5%), 예술계열 학생은 10명(3.5%)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 중졸, 전문대졸 이상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학력도 고졸이 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문대졸 이상, 중졸 순이었다. 부모의 결혼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85.4%로 대다수이었으며 이혼이나 별거, 사별을 경험한 경우가 14.0%였다.

&lt;표 1&gt;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범주	N	%
학년	1	172	59.9
	2	115	40.1
성별	남	107	37.3
	여	180	62.7
전공	인문사회	152	53.0
	자연공과	122	42.5
	예술	10	3.5
	결측	3	1.0
모의학력	대졸이상	38	13.2
	고졸	159	55.4
	중졸이하	84	29.3
	결측	6	2.1
부의학력	대졸이상	75	26.1
	고졸	156	54.4
	중졸이하	49	17.1
	결측	7	2.4
부모의 결혼상태	원가정 지속	245	85.4
	이혼, 별거	28	9.8
	사별	12	4.2
	결측	2	0.7

## 2. 조사도구의 구성

전체 질문지는 부모간의 갈등 척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대학생이 보고한 불안성향 및 공격성향 척도, 대학생활적용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 1) 부모간 갈등 척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한 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PIC)를 기초로 도구를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가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지각되는 부모간 갈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며 3점 척도로 되어있고 6개 영역의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권영욱과 이정덕(1997)이 한국판 CPIC 타당화 연구에 사용한 문항 중 부모갈등의 빈도와 강도, 해결에 관한 문항을 선정하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그렇다(3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가능 범위는 16-48점이다.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6문항), 강도(6문항), 해결(4문항)에 관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부모간의 갈등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 이었다. 하위 요인별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갈등빈도  $\alpha=.64$ , 갈등강도  $\alpha=.74$ , 갈등해결  $\alpha=.60$ 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들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의 평균은 25.73, 표준편차는 5.64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9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개방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10문항)과 부모와의 의사교환에 있어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조심을 하며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이며 문제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어쩌다 그렇다(3점)', '자주 그러는 편이다(4점)', '늘 그러는 편이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응답은 역산하여 폐쇄적 의사소통 점수와 합산하였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문제가 있고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응답가능 범위는 19점에서 95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점수의 평균은 49.60이었고 표준편차는 12.65였다.

### 3) 대학생이 보고한 불안성향 및 공격성향 척도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 및 이를 토대로 한미현과 유안진(1995, 1996)이 구성한 아동문제행동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불안(7문항: 불안이나, 긴장, 걱정 등의 행동), 공격(8문항: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는 행동)행동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나 공격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불안 .67, 공격 .8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표준편차)은 불안이 17.09(3.07), 공격이 18.45(4.06)로 나타났다.

### 4) 대학생활적용 척도

연구의 대상에 대학신입생이 다수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생활적용 척도는 대학생이 아닌 중고생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김호권의 중학생용 표준화검사인 '나의 학교'를 기초로 문교민(1995)이 수정·보완한 36문항과 중고생의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민병수(1991)가 제작한 25문항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두 검사의 하위척도는 문교민(1995)의 척도가 '학교생활에 대한 일반적 적응'이라는 하위척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교사',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의 5개 영역이 동일하며 대부분의

문항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두 척도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문교민의 경우 .88, 민병수의 경우 이훈진(1999)의 연구에서 .84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용 척도를 2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의 평균은 80.82, 표준편차는 11.49이었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11.0.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분산분석, Scheffé 검증,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가?

먼저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무차상관을 산출하고 이어서 가족요인 중 한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분 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를 산출하였다. 무차 상관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간의 갈등은 후기 청소년의 불안성향( $r=.20, p<.001$ ) 및 공격성향( $r=.30, p<.001$ ), 대학생활적용( $r=-.22, p<.001$ )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다. 부모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후기 청소년의 불안 및 공격성향이 높으며 대학생활적용은 더 낮았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역시 후기 청소년의 불안성향( $r=.28, p<.001$ ), 공격성향( $r=.27, p<.001$ ), 대학생활적용( $r=-.35, p<.001$ )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폐쇄적일수록 후기 청소년의 불안 및 공격성향이 높으며 대학생활적용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의 경우도 부모간의 갈등 및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상관관계 (N=260)

Pearson Corr.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간 갈등		.42***
불안성향	.20***	.28***
공격성향	.30***	.27***
대학생활적용	-.22***	-.35***

\*\*\*  $p<.001$

그런데 부모간의 갈등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42의 상관을 보여 부모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낮고 문제의사소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 중 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3>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제할 경우 부모간의 갈등은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과  $r=.22(p<.001)$ 의 상관을 보였고 불안성향이나 대학생활적용과의 상관은 매우 약해졌다. 부모간의 갈등과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간의 의미있는 상관은 갈등하는 부모의 행동모델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관계없이 부모간의 갈등이 자녀의 공격성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결과는 부모간의 갈등은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이나 내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약함을 보여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부모간 갈등의 각 하위 요인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부모간 갈등의 빈도( $r=.18, p<.01$ )는 불안성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갈등 빈도( $r=.18, p<.01$ ) 및 갈등 강도( $r=.15, p<.05$ )는 공격성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부모간 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불안성향이 높았으며 갈등의 빈도가 높고 갈등 강도가 강할수록 공격성향이 높았다. 반면 부모간 갈등의 강도나 갈등해결은 불안성향과 거의 관계가 없었으며 부모간 갈등의 빈도나 강도, 갈등해결은 대학생활적용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간의 잦은 갈등이 후기 청소년의 불안성향과 공격성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대학생활적용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부분 상관관계 (N=259)

partial corr.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통제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불안성향	.09	.22***
공격성향	.22***	.16**
대학생활적용	-.08	-.29***

\*\*\*  $p<.001, ** p<.01$

<표 4> 부모간 갈등의 하위 요인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부분상관관계 (N=259)

partial corr.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통제		
	갈등빈도	갈등강도	갈등해결
불안성향	.18**	.02	.03
공격성향	.18**	.15*	.12
대학생활적용	-.04	-.09	-.07

\*\*  $p<.01, * p<.05$

한편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간의 갈등 변인을 통제할 경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후기 청소년의 불안( $r=.22, p<.001$ ) 및 공격성향( $r=.16, p<.01$ )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고 대학생활적응과는  $r=-.29(p<.001)$ 의 상관을 보였다. 부모갈등을 통제하기 전보다 상관계수는 약간 낮아졌지만 부모간의 갈등 변인을 통제하더라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며 폐쇄적일수록 후기 청소년의 불안 및 공격성향이 높았고 대학생활적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 가족과정유형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부모간의 갈등(Mdn=25.0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Mdn=8.00)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부모간 갈등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양호하고 개방적인 집단과 문제성 있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을 유형화한 후 집단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족과정유형의 분포

가족과정유형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빈도	%
저갈등, 개방적 의사소통		83	30.4
고갈등, 개방적 의사소통		55	20.1
저갈등, 폐쇄적 의사소통		58	21.2
고갈등, 폐쇄적 의사소통		77	28.2
계		273	100.0

가족을 유형화한 후 가족과정유형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다른지를 분석하고 사후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가족과정유형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불안( $F_{3,268} = 15.46, p<.001$ ) 및 공격성향( $F_{3,268} = 8.65, p<.001$ )과 학교생활적응( $F_{3,268} = 9.75, p<.001$ )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며 갈등이 높은 집단은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집단보다 불안성향이 더 높았다. 그리고 갈등이 낮더라도 의사소통이 폐쇄적인 집단은 갈등이 낮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집단보다 불안 성향이 더 높았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문제 있고 폐쇄적이며 갈등이 높은 집단은 의사소통에 관계없이 갈등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공격성향이 더 높았다. 반면 갈등 수준이 높더라도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집단은 갈등이 낮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집단과

공격성향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활적응 역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모간의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은 갈등수준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집단에 비해 적응이 더욱 취약했으며 갈등이 낮은 집단일 경우 의사소통이 폐쇄적인 집단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집단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의 불안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이 부모간 갈등보다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보다는 부모간의 갈등에 의해 더 직접적으로 영향 받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시사는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표 6> 가족과정유형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와 사후검증 결과

가족과정유형	불안성향			공격성향			대학생활적응		
	N	M(S.D.)	Scheffé	N	M(S.D.)	Scheffé	N	M(S.D.)	Scheffé
저갈등, 개방적 의사소통	83	15.71(3.16)	a	83	17.07(4.16)	a	82	85.73(11.51)	a
고갈등, 개방적 의사소통	55	16.60(2.86)	ab	55	18.38(4.04)	ab	47	82.38(9.73)	ab
저갈등, 폐쇄적 의사소통	58	17.50(2.30)	bc	58	18.26(3.34)	a	58	79.16(9.24)	bc
고갈등, 폐쇄적 의사소통	76	18.68(2.82)	c	76	20.20(3.85)	b	75	76.77(11.95)	c
계	272	17.10(3.06)		272	18.46(4.05)		262	81.11(11.41)	
F값	15.46***			8.65***			9.75***		

\*\*\* p<.001

연구문제 3.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후기 청소년의 불안성향( $\beta=.19, R^2=.04$ ), 공격성향( $\beta=.29, R^2=.09$ ), 대학생활적응( $\beta=-.22, R^2=.05$ )은 부모간 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을 분석에 포함할 때 불안성향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설명력은 사라졌으며, 공격성향의 경우 설명력이 8%감소( $\beta=.29$ 에서  $\beta=.21$ )로하였다. 이에 반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beta$ 값은 불안성향의 경우 .25( $p<.001$ ), 공격성향에서 .19( $p<.01$ ), 대학생활적응에서 -.31( $p<.001$ )로 나타났다. 부모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취약하지만 불안성향이나 대학생활적응은 부모자녀간의 의

사소통에 의해 중재되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폐쇄적일수록 후기청소년의 불안성향 및 공격성향이 더 높고 대학생활적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불안성향에 대해 9%, 공격성향에 대해 12%,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13%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회귀분석

단계		불안성향		공격성향		대학생활적응	
		B(SE)	β	B(SE)	β	B(SE)	β
1 단계	상수	14.42(.84)		13.01(1.12)		92.28(3.17)	
	부모간 갈등	.11(.04)	.19***	.21(.04)	.29***	-.44(.12)	-.22***
	F값	10.64***		26.04***		13.20***	
	R <sup>2</sup>	.04		.09		.05	
2 단계	상수	12.90(.93)		11.41(1.21)***		99.53(3.44)	
	부모간 갈등	.04(.04)	.088	.16(.05)	.21***	-.18(.13)	-.0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05(.02)	.25***	.06(.02)	.19**	-.28(.06)	-.31***
	F값	12.79***		17.62***		18.81***	
	R <sup>2</sup>	.09		.12		.13	

\*\*\* p<.001, \*\* p<.01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둘 다 중요한 설명요인인 반면 대학생의 불안성향이나 대학생활적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가족요인이 의미 있게 영향을 주되 전반적인 부모간의 갈등 자체보다는 부모간 갈등의 빈도가 중요하며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특징과 정도가 더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이나 사회적 적응을 위해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후기 청소년의 공격적 태도나 행동의 발달에 있어서 부모간의 갈등이 중요한 영향을 주되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과 행동적 공격성향 및 대학생활적응을 중심으로 부모 및 가족과정(Family process)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대학 1,2학년 28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과정 변인이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기초해 구분된 가족과정유형은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계가 있다. 부모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후기 청소년의 불안 및 공격성향이 높고 대학생활적응이 취약하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후기 청소년의 불안 및 공격성향이 높고 대학생활적응이 취약하다. 이 결과는 청년 후기의 대학생일지라도 가족 및 부모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후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나 동일시보다 자율과 독립에 대한 욕구가 크고 동시에 부모자녀 관계가 재구성(Windle, 1992)되며 생애 중 가장 먼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허혜경·김혜수, 2002)하는 시기이지만 청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부모와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부모간의 갈등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따라 자녀의 적응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우선 부모간의 갈등은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과 직접적 관계가 있지만 불안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제할 경우 부모간 갈등과의 관련성은 약화된다. 특히 후기 청소년의 불안성향은 부모간 갈등의 빈도와는 직접적 상관이 있지만 전반적 부모간 갈등과 불안성향과의 관계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의해 매개된다. 즉 부모간 갈등의 빈도는 자녀의 불안성향과 여전히 관계가 있지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고려할 경우 부모간 갈등의 강도나 해결이 자녀의 불안성향이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나 사건 자체는 그것이 지속적이고 빈발할 때에만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이나 불안성향에 관련됨을 보여준다. 더불어 부모간 갈등이 후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모와 자녀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과가 적응에 더 직접적 영향을 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권영옥·이정덕, 1999; 김영희·이정미, 2002; 나철·이길홍·민병근, 1984; 양희정, 1999; 정은희·이미숙, 2004; Amato & Keith, 1991; Gottman & Katz, 1989; Grych & Fincham, 1990)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상치된다. 부모간 갈등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른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후기 청소년의 개체화 및 변화된 의사소통 능력 등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 자녀일 경우 부모간 갈등에 대해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공포, 위협들을 경험하는 반면에 청년의 경우 부모간의 갈등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다. 어린 연령 때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 역량이 증가하고 부모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가능해져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한 직접적 불안이나 대학생활 부적응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관계없이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의 공격성향과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던 결과는 모델링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적응문제와 관련되고 특히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Patterson & Zill, 1986). 부모간의 전반적 갈등보다는 갈등의 빈도나 강도가 자녀의 공격성향과 관계가 있었던 결과를 고려한다면 부모간의 반복적, 지속적이고 강렬한 갈등을 관찰하는 가운데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문제 상황을 갈등으로 자주 표출했던 경험이 후기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 표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모간 갈등이 높은 가족의 후기 청소년은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가장 취약하고 부모간 갈등이 낮더라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인 가족의 후기 청소년도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취약하다. 반면 부모간의 갈등이 낮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가장 양호하다. 그런데 부모간의 갈등이 높더라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가족의 후기 청소년은, 갈등이 높은 낮은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의 청소년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더 낮고 불안성향도 더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 행동(김정화, 1989; 김수현, 2003; 민하영, 1991; 유정선·이정숙, 2004; 장미숙, 1999)이나 우울(이영숙·김정옥, 2002)과 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원활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특히 부모간 갈등이 높더라도 부모자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무조건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갈등의 발생을 줄이면서 나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식, 특히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모간 갈등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높고 부모간 갈등이 낮으면 공격성향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다르더라도 부모간 갈등수준이 동일한 집단에서는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이 다르지 않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비해 부모간 갈등이 후기 청소년의 공격성향을 이해하는데서 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즉 자녀의 공격적 성향 발달에 있어서는 부모간의 지속적 갈등이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부모 상호간의 갈등 방식은 부모간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자녀의 공격적 성향과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간 갈등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 상호간의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다루는 바람직한 방식을 습득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부모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후기 청소년의 불안성향에 대해 9%, 공격성향에 대해 12%,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13%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처럼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데 불안성향이나 대학생활적응의 경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에 의해 부모간 갈등의 설명력이 사라졌던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불안성향과 대학생활적응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이 부모간 갈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되지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의해 중재됨을 그리고 공격성향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부분 중재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의 결과는 가족관계보다 사회적 관계의 비중이 커지는 청년기에 이르렀다 해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대변되는 가정환경은 여전히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발달 과업으로 하는 후기 청소년기에도 부모가 여전히 그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한 중요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 증진을 위해 부모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선의 각 대학에서는 후기 청소년인 신입생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 정서적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신입생들의 적응을 위해 부모의 지원이나 도움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적응을 위해 학교와 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청소년 후기에 접어든 대학 1, 2학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도 역시 대학과 부모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단,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부모간 갈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의해 중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신입생을 포함한 후기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기술의 훈련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독립과 자율이라는 발달 과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후기의 대학 1, 2학년생에게 부모 및 가정이 여전히 의미 있는 영향 요인임을 보여주었고,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부모교육 만큼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도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후기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있어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기술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단, 이 연구는 한 지역의 대학교 1, 2학년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는 후기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더불어 부모간의 갈등이나 부모자



녀간의 의사소통을 부와 모로 구분하지 않고 조사했으므로 부와 자녀간의 관계, 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되 우선 후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에서 경험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후기 청소년이 독립과 의존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갖는 것처럼 부모도 이중적 기대를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품안의 자녀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의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상호작용 방식과는 다른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과 매체에 익숙해 있다. 이러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가적 기대가 후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부모교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후기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접수일 : 2005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7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8월 25일

【참 고 문 헌】

권영옥·이순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0(4), 61-74.

권영옥·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현(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이정미(2002).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95-114.

김정선(1996).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철·이길홍·민병근(1984). 학생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의대지*, 9(4), 561-582.

문교민(1994). 모의 교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적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혜영(1992). 고교생의 대인관계성향과 부모-자녀 대화개방도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희정(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정서문제 행동간의 관계-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정선·이정숙(2004).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성장환경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75-183.

유희정(2001). 부모의 이혼과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2), 57-78.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미·민하영·이윤주(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63-72.

이영숙·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이훈진(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원(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분위기가 청소년의 또래공격성 및 또래희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미숙(199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정은희·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15-126.

한미현·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허혜경·김혜수(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 of Vermont.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D. H. Olson, H. I. McCubbin, A Larsen,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MN: Univ. of Minnesota.

Cummings, J. S., Pellegrini, D., Notarius, C. & Cummings, E. M.(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it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parent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2nd ed.* Glenview, Ill: Scott, Foresman.
- Gottman, J. M. & Katz, L.(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73-381.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discord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Pat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Wierson, M., Forehand, R. & McCombs, A.(1988). The relationship of early adolescent functioning to parent-reported and adolescent-perceived conflic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707-718.
-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22-530.